팝업스토어부터 '생카'까지…'HIP불교' 전성시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톡톡 튀는 굿즈들로 가득 찬 팝업스토어부터 사찰음식 명장 스님과의 콜라보 메뉴까지. 그야말로 '힙(HIP)불교' 전성시대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이 픽한 패션 아이템으로 유명한 '바반투(BHAVANTU, 대표 김서현)'는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무신사 홍대에서 팝업스토어를 개최했다. 무신사와의 첫 협업인 만큼 바반투는 신상 제품과 함께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BUDDHA! 에코백'(9가지 컬러), '108ing 브라운컬러 모자'를 팝업스토어 단독 상품으로 선보였다.

김서현 바반투 대표는 "무신사 고객층이 두터운 편이라서 팝업이 성황리에 진행됐다"며 "특히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다. 지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가 팝업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 고객들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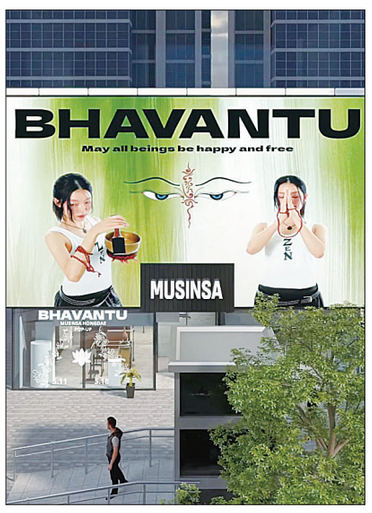
바반투는 홍대에 이어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에서도 팝업스토어를 연다. 부산 팝업스토어 행사는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불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표방하는 '붓다를 붓다'(공동대표 박지민·정수진)는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1층 뉴웨이브(New Wave) 공간에서 신개념 불교 팝업스토어 '요즘 불교'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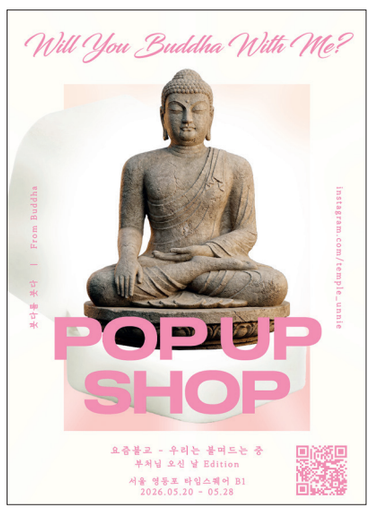
지난 2월 대구일러스트코리아와 4월 서울일러스트코리아에서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붓다를 붓다'가 더 큰 무대로 진출하는 첫 행보다. 기존 일러스트 페어에서 보여준 개성 넘치는 아트워크와 굿즈 중심의 전시에서 나아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꾸밀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만 구입 가능한 특별 한정판 굿즈부터, 많은 이들의 취향을 저격해 온 베스트셀러 라인업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 연화사(주지 묘장 스님)는 '부처님 생신 카페'를 올해도 진행하고 있다. 4월 24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운영되는 연화사 '부처님 생신 카페'는 지난해 화제가 된 연꽃 라떼에 쑥라떼까지 더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바반투 무신사 홍대 팝업스토어 조감도.



'붓다를 붓다' 팝업스토어 포스터.

바반투, 무신사 홍대 팝업
5월 11~18일 성황리 마쳐
5월 22일부터 부산서 팝업

연화사, 올해도 부처님 '생카'
영천목탁 등 팝업 함께 진행

'붓다를 붓다'도 팝업 행사
해탈컴퍼니, 애프터 파티 기획
샐러디, 선재 스님 메뉴 선봬

이와 함께 연화사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부처님 미리오신날 팝업' 행사를 연다. '부처님 미리오신날 팝업'에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목탁 클리커로 화제가 된 '영천목탁'과 불교 굿즈 브랜드 '니르바나', 컵묵밥으로 잘 알려진 '묵사랑', 불교여행자 '강산'이 참여한다.

주지 묘장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은 "아이돌 그룹 팬들이 좋아하는 멤버의 생일에 맞춰 '생일 카페'를 열고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이 곧 아이돌이니 '생신 카페'를 열면 20~30대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부처님 생신 카페를 통해 젊은이들이 부처님오신날을 쉽게 받아들이고 함께 축하할 수 기회를 마련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해탈컴퍼니(대표 주여진)는 부처님오신날 애프터 파티를 준비 중이다. 5월 30일 오후 1시 서울 불이성 법륜사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애프터 파티 '불~나 좋아 페스티벌'은 해탈컴퍼니 굿즈 판매, 명상 및 불교문화 체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선무·디제잉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세계 최초 불교밴드 '해골물 밴드'가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현우 부대표는 "해골물 밴드는 해탈컴퍼니 구성원으로 이뤄진 불교 밴드"라며 "현재 AI와 함께 자작곡을 만들어 열심히 합주 연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찰음식 명장 스님과 콜라보 메뉴도 눈길을 끈다. 국내 1위 샐러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샐러디(대표 안상원·이건호)가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과 협업한 '샐러디 셰프 컬렉션'을 통해 비건 한식 메뉴 2종을 5월 14일 출시했다.

선재 스님이 외식 브랜드와 협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님은 그동안 외식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방송 이후 사찰음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문화 철학을 보다 널리 알릴 필요성을 느껴 이번 협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샐러디와 선재 스님이 선보이는 메뉴 2종은 고추간장 당근 국수와 고추간장 취나물 비빔밥이다.

두 메뉴는 모두 오신채(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를 사용하지 않고 육류를 배제한 비건 메뉴로 개발됐다. 대신 두부와 버섯을 활용해 단백질과 영양 균형을 보완했으며, 자극적인 요소를 최소화해 '편안하게 먹는 한 끼'에 초점을 맞췄다.

선재 스님은 "생채소는 몸을 차게 하거나 소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발효된 간장은 음식의 소화를 도와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며 "음식에도 '쉼'이 필요하기에 이번에 선보이는 음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몸이 맑아지고 삶이 더욱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업 메뉴는 5월 14일부터 약 2개월간 한정 운영될 예정이며, 종료 시점은 추후 안내된다.

원효학술상 특별상에 자현 스님·장규언

진흥원 선정 결과 발표
학자 부문에 공동 수상
오는 5월 22일 시상식

제16회 원효학술상 학자 부문 수상자로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자현 스님과 장규언 서강대 철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5월 6일 종합 심사회의를 열고 제16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학자 부문 특별상에는 자현 스님이 저서 〈한방에 깨닫는 법, 마음 혁명〉으로, 장 책임연구원이 저서 〈원측 사상의 해석학적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자현 스님


장규언 책임연구원

진흥원 측은 "자현 스님의 저서는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심층 구조를 새롭게 조명하며,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한 창의성 높은 역작"이라고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 책임연구원의 저서는 유식학의 기본 경전 〈해심밀경〉의 주석서인 원측의 〈해심밀경소〉 '무자성상품'의 비판 교정본과 영역을 부록으로 편성한 방대한 분량의 저술"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석·박사 과정 학생 부문 금상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 이주현 씨의 논문 '보현보살의 십대원과 서방정토 발원-자력과 타력의 회통을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은상에는 동국대 대학원 박사 명준 스님의 논문 '〈벽암록〉 본칙에 나타난 사제 관계의 수행 구조와 철학적 해석'이, 동상에는 동국대 대학원 박사 과정 향인 스님의 논문 '〈미륵상생경종요〉의 10문 구조 연구-원효의 미륵수행관을 중심으로'가 이름을 올렸다. 금상에는 400만원, 은상에는 300만원, 동상에는 2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한편, 제16회 원효학술상 시상식은 5월 22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 3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법당 '후불도' 정밀조사 첫 보고서

국가유산청 · 성보문화연구원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6점 결과 담아…올해 5점 조사

법당에 봉안된 불상 뒤에 장엄된 대형불화 '후불도'를 정밀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사)성보문화유산연구원(원장 송천 스님)과 함께 진행 중인 '대형불화(후불도) 정밀조사' 사업의 성과를 담은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후불도는 법당의 불상 뒤에 걸어 예배용으로 사용하는 길이 5m 가량의 대형 불화다. 크기가 크고 무거우며, 온습도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에 민감한 재질로 되어 있어 보존과 관리가 까다로운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성보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해부터 5년(2025~2029년)에 걸쳐 전국의 중요 후불도 정밀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5년 조사 완료한 △흥국사 대웅전 후불탱 △불영사 영산회상도 △안동 봉황사 삼세불화 △현등사 아미타회상도 등 총 4건 6점의 후불도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담았다.

이번 조사 대상 중 하나인 '현등사 아미타회상도'는 18세기 경기지역 불화의 화풍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작품으로, 조사를 통해 문화유산적 가치를 재조명받았다.

그 결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승격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국가유산청과 성보문화유산연구원은 △달성 용연사 영산회상도 △달성 유가사 영산회상도 △영덕 장육사 영산회상도 △청도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 △은해사 극락보전 후불탱화 등 5건 5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가치를 지닌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창종법회

총무원장 현광 석자운 (사서실장 석재현)
승정원장 석보경 종회의장 석월암 원로의장 석선학
승 정 석법일, 석법광, 석도암, 석덕인 원로위원 석일현, 석대원, 석도명, 석보성, 석혜림, 석법안, 석해진
호법원장 석동심 감찰원장 석도관 호계원장 석도일 교 육 원 장 석유심 총무부원장 석현법 복지원장 석청명
문화원장 석불산 포교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구담 비구니원장 석정인 비구니회장 석서정 비구니부원장 석우진

각 교구원장
부산동종무원장 석혜명 대구 종무원장 석진성 김해 종무원장 석법원
부산서종무원장 석경일 밀양 종무원장 석경오 영천 종무원장 석혜심
창원 종무원장 석혜일 전남 종무원장 석서정 제주 종무원장 석경담
마산 종무원장 석법상 경남 종무원장 석혜운 전북 종무원장 석해산
울산 종무원장 석진공 강릉 종무원장 석원공 광주 종무원장 석청오
칠곡 종무원장 석현승 경북 종무원장 석혜덕 인천 종무원장 석지원

전국신도회
중앙신도회회장 박재종(慈光) 중앙신도부회장 장광옥(法雲)
사무총장 강위석(慈明) 고문 이효근(普泉), 장금석(定慧)
신도회장 안희윤(普德行) 신도부회장 윤현옥(金剛行)
신도총무 변성희(大德信) 감사 최호연(淸眼)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심규명, 김영길, 이승현 법무사 이기동 세무사 안미옥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 외부사진
– 반명함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취
총무원 TEL 052·247·4848 FAX 052·247·4849 H·P 010·3565·2462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본산 마하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42 ☎ 052·247·4848